


[제2016-22호]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h1>보 도 자 료</h1>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Tel (323)936-7141 <a href="http://www.kccla.org">www.kccla.org</a>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
배포일시	2016.4.29 (금)	담당자	최희선 323-936-3014

## <제22회 LA한국문화원 현대미술공모전 당선 작가전> 개최

- ▶ 전시기간 : 2016년 5월 13일(금) - 6월 3일(금)
- ▶ 개막식 및 수상식 : 2016년 5월 13일(금) 저녁 7-9시
- ▶ 장 소 : LA 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 ▶ 심사위원 : 데이브 베일리(Dave Bailey), 맥스 프레스넬(Max Presneill)
- ▶ 선정작가 : 지나 코카로(Gina Cocco), 김우민(Woomin Kim), 코니 DK 레인(Connie DK Lane), 누서유(Soe Yu Nwe)
- ▶ 문 의 : LA 한국문화원 323-936-3014 전시담당 최희선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 이하 LA문화원)은 “제22회 LA한국문화원 현대미술공모전 당선작가” 전시를 2015. 5.13(금)부터 6.3(금)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LA문화원 공모전은 1993년도에 시작되었으며, 인종, 학벌,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 내에 거주하는 전업 프로작가들을 대상으로 현대미술공모전을 실시하여 수준높은 전시회를 개최하고, 예술을 통한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이다.

올해로 22회를 맞는 LA한국문화원 현대미술공모전은 미 전역에서 수준 높은 작가들이 관심을 갖고 참가를 하고 있다. 올해는 60명의 공모자 가운데 4명의 작가를 선정하였다.

심사위원 또한 미 주류화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큐레이터 및 비평가들로 해마다 2-3명으로 구성하여 항상 새로운 전시를 선보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해 선정위원은 파사데나 아트센터에서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Faculty로 근무하는 데이비드 베일, 그리고 토렌스 아트뮤지움의 디렉터 & 헤드 큐레이터인 맥스 프레스닐이 참여하였다. 심사위원들은 심혈을 기울여 4명을 선정하였다.

미국 내 현대미술의 흐름을 가능할 수 있는 동 전시회에 올해는 설치 미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LA한국문화원은 한국문화를 타 커뮤니티에 알리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다른 커뮤니티와 많은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현대미술공모전은 대표적인 타커뮤니티와의 문화교류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저희는 공모전에 우수한 작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작가들에게 서로의 작품 세계를 나누며, 존중하고,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여 문화 강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김낙중 문화원장은 언급했다.

5월13일(금) 개막식에는 선정위원 및 작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선정 작가 4명 가운데 대상 1명에게 \$5,000과 입선자 3명에게 각 \$1,000의 격려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 선정작가 (ABC 순)

1. 지나 코카로 (Gina Coccaro) : 세인트 피츠버그, 플로리다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조각가 존 챔벌레인(John Chamberlain)에게 영향을 받은 그녀는 금속 조각작품이 주를 이룬다. 주로 찌그러진 자동차 부속품을 자르고, 구부리고, 볼로 연결하여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킨다.



Intergalactic (2015) 17 x 30.5 x 13 inches Painted and welded steel

2. 김우민 (Woomin Kim) : 시카고, 일리노이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를 추리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진실로 알고 있다. 하지만 사물은 그들의 세월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작가 김우민은 주변의 사물들을 보는 방식에서 습관적인 인식체계, 고정관념, 주관성과 편협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이 작업이다.



Erased Corner Series - B114J\_graphite on wall, eraser shavings\_ 150x150x210 cm\_2014

3. 코니 DK 레인 (Connie DK Lane) : 롱비치, 캘리포니아

과거와 현재는 감정과 사고의 차이라고 표현하는 코니 레인은 거의 잊혀져가는 홍콩에서의 생활을 되짚어 작품 속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고 있다.



Hybrid 2015 58H x 60W x 55D Polyester filling wax paint nails roofing asphalt seedpods and mixed media

4. 서유 닐 (Soe Yu Nwe) : 시그널 힐, 캘리포니아

중국계 이민자로 어린시절 리안마에서 성장하였으며, 현재는 미국에서 활동 중인 서유 닐은 이민자로서 겪는 소외감과 아픔,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이야기를 작품 속에 풀어내고 있다.



Spring Wound, Opened, 2015 Glazed porcelain 18in x 18in x 17 inches